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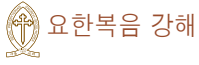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시간 속에 있는 영원 I

(요 5:24-27)

이종윤 원로목사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 우리에게 그 생명이 완성되는 것은 부활할 때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1.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내 말을 듣고” (요 5:24).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25).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식작용입니다. 지식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자기 칭호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이며 그래서 요한의 신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요 10:36, 11:4, 19:7).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를 ‘이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 육신적으로 죽었던 사람은 부활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부활도 하고 지금 영적으로도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2) 하나님을 믿는 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5:24중)

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라는 말은 ‘듣는 자’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은 내 말을 믿는다는 말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듣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우

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계 1:3). 그러므로 누구든지 먼저 듣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얻어야 믿게 되느냐? 하는 질문은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지적작용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문법적인 해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② ‘믿는다’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성취해 주실 뿐 아니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격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3)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5:24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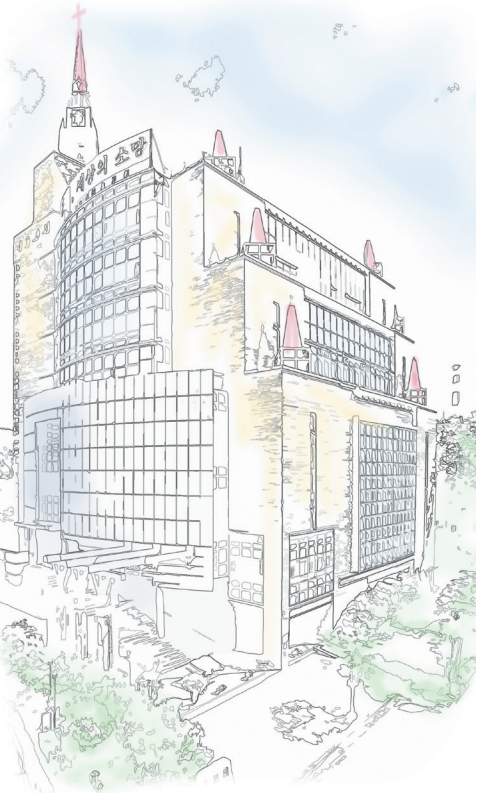
① 요한복음서에서는 생명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이 생명은 코에 붙어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얻었고’라는 말의 헬라어를 영역하면 현재형입니다. 우리말로는 과거형으로 보이지만 현재형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적 상태를 말해 줍니다. 영생이 한 번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②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진 생명과 아들이 가진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은 자존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었으나 아들이 자존자라는 말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생명을 가진 자존자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지만 우리는 자존자는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5:27).

(다음 주 계속)



임시당회장 파송 이후 첫 당회 개최되다

- 재창립 특별위원회 설치,
올해 섬김위원 내년 한해 더 그대로 연임하기로 -

지난 11월 4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서울강남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 권용평 목사(서울 베다니교회 원로) 인도하에 11월 정기당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임시당회장 파송 이후 첫 당회로서 이날 당회는 임시당회장 파송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집행 절차 등 제반 후속 조치의 건을 비롯 서울교회회복과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재창립 수준의 혁신을 통한 서울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당회 산하에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약칭 '재창립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 등을 결의하였다.

이외에도 금년도 코로나19 상황으로 각 부서

활동이 심히 제한되거나 사실상 중단된 부서가 많고 또 교회회복으로 내년도 본격적인 사역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업무 신속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금년도 섬김위원(선출직 포함)을 내년도도 1년간 더 연임하도록(단 해당자가 은퇴하는 경우는 제외)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특별히 새로이 구성되는 재창립 위원회를 통해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잘 수렴되어 내년 한 해가 설립 30주년을 맞는 서울교회 역사에 길이 기억될만한 열매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1년 목회정책협의회

11월 27일(금) 오후 7시 / 802호

2021년을 준비하는 목회정책협의회가 11월 27일(금) 오후 7시 802호에서 열린다.

2021년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듯하다. 교회회복과 재창립 수준의 갱신

과 혁신의 큰 틀 안에서 한 해의 행사 및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목회정책협의회가 은혜 중에 열리도록, 그리고 참석하는 당회원과 교역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11. 16(월) - 11. 21(토) 새벽 5:00 - 6:00 / 강사 : 손달익 목사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 라는 주제로 사명자대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이다.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하여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

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앞드려 기도해야 한다.

11월 16일(월)-21일(토) 새벽 5시에 있을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2020 성경암송대회 일반부 본선

오늘 오후 1시 20분 / 802호
오늘 찬양예배시 암송자 51명 "암송 합창"

2020 성경암송대회 성인부 본선이 오늘 오후 1시 20분 802호에서 열린다.

교육1국 암송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방역 및 어린이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지난 11월 1일(주)에 교육국 자체 본선으로 치러졌다.

교육국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유아부

- 대 상 : 최아준 · 사랑상 : 정혜술
- 믿음상 : 김서환 · 소망상 : 이린하

- 유치부

- 대 상 : 이하륜
- 사랑상 : 한세희 이수빈
- 믿음상 : 최은성 유하민

- 소망상 : 정혜윤 · 장려상 : 김재경

- 유치등부 단체

- 사랑상 : 학생팀1 김재운(1) 최지성(2) 한세아(3) 김하준(3) 윤서진(3) 오유민(3) 조건우(4) 임하람(5) 이시우(5) 배은찬(5) 장유정(6)
- 믿음상 : 학생팀2 이하은(1) 유하연(3) 배은준(4) 조연우(6)
- 소망상 교사팀 : 박미라 김혜연 송미령 오윤걸 노애리 남재은 신경미 김동욱 이수경 김민아 장윤기 박미혜 유수진 이수정 한가형 임채연 김동현 김연화 박은영 김보영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권정현·이옥수 양동덕·나미경 송재현·선순례 김광태·안미애 윤종현 안흥희·전화진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출석교인 대상 차량등록 실시

11월 한 달 동안

교회 시설이 정상화 되어감에 따라 출석교인들의 차량등록을 11월 한 달 동안 새로 받기로 하였다. 이는 성도들의 원활한 지하주차장 이용을 위한 방안이다. 차량등록 신청 대상은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 모두이며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성명,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기재하여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봉사자 모집

교회 곳곳에서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차량봉사 : 김광태 집사에게 연락 바람
· 주일 2부 예배 안내위원 : 부장 예산식 집사, 차장 김순진 집사에게 연락 바람
· 출입교인 발열체크 및 Q.R. 교인증 확인을 위한 봉사자 : 사무국에 문의 바람

농어촌 100교회 후원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비전2020운동 후원 봉투비치대 이동

그동안 1층에 비치되었던 “농어촌 100교회 후원”,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비전2020운동 후원” 봉투를 2층, 202호실 앞에 옮겨 비치하였다. 이제 남은 두 달 동안 2020년 초에 작성했던 “농어촌 100교회 후원”,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비전2020운동 후원”에 적극 동참하여 전도와 선교에 협력하기 바란다.





초심 잊지 않은 서바협 활동 마감

- 교회회복 위한 결단 -

10월 28일(수) '서울교회 바르게 세우기 협의회'(이하 서바협) 임원회의에서는 서바협 존재의 본래 취지였던 박노철의 실체를 드러내고 삼가는 것(박노철의 출교)이 이루어졌고 이전 서울교회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당회와 성도들이 교회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서바협의 활동을 끝내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이 같은 서바협의 결단은

첫째, 서바협이 그간 이루어 낸 모든 것은 서바협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제 교회정상화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나아가 참된 교회로의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후 서울교회는 서바협이 주목받고 드러나며 쓰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교회회복의 길을 가야 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들께서는 서바협의 활동 마감에 대해 "기울어지는 배를 바로 잡는 것에 헌신하는 대신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지는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울어진 배는 바로 세워지고 있으며 동시에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에 성도의 힘이 모아져야 하는 상황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단지 서바협은 지금까지의 성과로 교회분쟁 종식에 많은 힘을 보탤 것으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서울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혁신의 씨앗은 서바협이 아닌 우리 성도로부터 새로 움트려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간 서바협에 대한 불의한 세력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서바협의 진정성에 관해 잘 못 알려진 부분을 해명하려면 더 이상 서바협이 존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대표인 저에 대한 견제와 압력이나 비판과 온갖 음해에도 서바협을 신뢰하고 지지하여 주신 성도들께 그에 대한 해명과 서바협의 진퇴에 대한 고언을 드리려면 최소한 서바협은 내려 놓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활동 마감 이후의 일정입니다. 서바협 임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서바협이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여건과 환경이 허락하는 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서바협 밴드와 블로그는 사료(史料)적 측면

에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바른 복음과 성경적인 개혁신앙의 원리에 관한 자료(신앙서적 등)를 나누는 도구로 참된 교회로의 회복에 쓰이길 위해 존속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으시다면 말입니다. 언제든지 의견 주십시오. 댓글을 다실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그간 보내 주신 후원금은 서바협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강남노회 전현직 노회장들에 대한 고소건, 박노철 측에 의해 고발된 저에 대한 재판- 비용 등과 블로그에서 나눔, 위에 말씀드린 도서와 자료 구입비 등 향후 비용의 지출이 끝나는 대로 정산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이라도 현재까지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 5년여의 시간 서바협과 함께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교회회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바로 세우기 협의회
대표 김시환 집사



사명자대회

감사하기 딱 좋은 때



김정제 권사
(2020사명자대회
동사분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 온 계절 가을~ 그리고 시작되는 50일간의 대장정 사명자대회!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길어져 가면서 몸도 마음도 황폐해져 가는 이때에 주님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살이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교회 문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답답하고, 질병, 관계의 어려움 등 사방을 둘러보아도 감사할 조건이

전무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며 사명자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등 정한 시간·정한 장소에서 온 성도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자율기도서를 올리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교회회복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도적같이 임한 축복! 감사! 감사! 감사!

부패한 목사와 그를 따르던 불의한 자들은 손해배상 판결 이후 용역들과 함께 점거 중이던 교회 건물을 반환하는 발 빠른 행동을 보였으며 우리 성도들은 모두들 뛰어나와 감사와 찬양을 부르며 예배당을 청소하고 본당에서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후유증 없는 교회의 온전하고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나아갈 것입니다.

사명자 기간(2020.10.4-2020.11.22) 마지막 주는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널찍한 예배당에서 거리두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니 모두들 나와서 내 사랑 서울교회가 'Coram Deo의 신앙'을 회복하여 이 시대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년도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특별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에는 승전가를 부르며 기쁨과 감사의 잔치마당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비대면이 풀리면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눌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명자대회 봉사분과회와 권사회에서 꾸민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지금까지 교회회복을 위해 인내하며 견뎌오신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부서별 대청소

지난 10월 31일(토) 교회 각부서별 대청소가 2시부터 있었다.

이 날 각 부서마다 교회에 나와서 그간 묵었던 쓰레기를 치우고 물품들을 확인하였으며 특

별히 호산나대학 관계자 및 학생들도 동참하여 교회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었다.

(사진 : 유은경 집사 임승한 집사 최영철 집사)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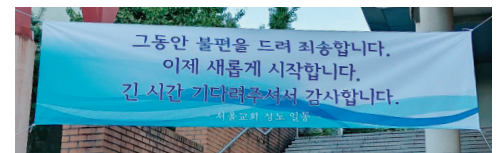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1월9일	월	행 15-16		마 16-20	
11월10일	화	행 17-19		마 21-24	
11월11일	수	행 20:1-22:21		마 25-28	
11월12일	목	행 22:22-25:27		막 1-5	
11월13일	금	행 26-28		막 6-9	
11월14일	토	롬 1-2		막 10-13	
11월15일	주일	롬 3-5		막 14-16	

물품기증

교회회복과 방역을 위한 성도들의 물품기증이 이어지고 있다.



- 좌) 자동발열체크기를 김광태 집사·최종희 권사 가정에서 기증하였다.
- 우) 자동손소독기를 이강인 집사·허숙 권사 가정에서 기증하였다.



김규태 집사·박미혜 권사 가정에서 교회회복을 위한 프랭카드를 제작 기증하였다.



전기식 초미립자 분무 소독기 대형 1대, 소형 1대를 이태승 집사·정진영 집사 가정에서 기증하였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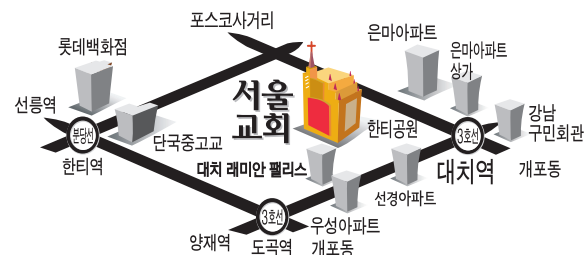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우리 교회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2. 2020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예 힘씀으로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